

입학부터 졸업까지 '원스톱' 관리 단계별 '맞춤형 취업 로드맵' 운용



남부대학교 전경



남부대학교가 높은 취업률을 바탕으로 실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취업로드맵을 운용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One-Stop 시스템으로 학생을 관리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 체계=광주시 첨단지구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교인 남부대학교는 1998년 개교해 역사가 짧지만 성장을 거듭해왔다. 개교 당시 1개 학과 30명이었는데, 2018년 현재 19개 학과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남부대는 삼애(愛天, 愛人, 愛國)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찰행정학·사회복지학과·한국어학과, 사범계열의 초등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과, 자연과학계열의 향장미용학과·호텔조리학과·식품영양학과, 보건계열의 간호학과·방사선학과·물리치료학과·응급구조학과·언어치료학과, 공학계열의 자동차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e게임스포츠학과, 예체능 계열의 스포츠레저학과·무도경호학과 등이 있다.

남부대학교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정보공시에서 취업률 2017년 69.4%, 2016년 72.8%, 2015년 72.7%를 기록했다.

남부대학교는 단계별 맞춤형 취업 로드맵을 만들어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주기적인 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년제 종합대학 19개 학과 실용형 전문인력 양성 선도 2019학년도 722명 수시모집 e게임스포츠학과 등 신설도

취업 로드맵은 총 4단계로 구성됐다. ▲1학년 '직업 설계' ▲2학년 '직업 설정' ▲3학년 '취업 지원' ▲4학년 '취업 강화' 단계로 이뤄져 대학 입학부터 본인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 취업하도록 뒷받침한다. 또 입학부터 졸업까지 One-Stop 시스템으로 학생역량강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로상담, 진로설계, 경력관리 등 전문 시스템으로 분석해 취업을 지원한다.

또 전공 관련 국가 및 민간 기관 자격증 취득 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실용 학문 중심 교육체계=남부대는 201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9월 10~14일 접수한다. 모집단위는 19개 학과이다. 전체 모집 정원 758명 중 722명을 수시모집에서 뽑는다. 면접구술고사는 10월 19일 실시하며, 대상자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1단계 합격자와 나머지 학과 지원자 모두이다.

합격자 발표는 10월 31일에 한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는 경우 수능능력고사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12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정원내가 672명, 일반 657명, 교사 추천자 15명이다.

정원의 모집 50명은 농어촌 출신 15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3명, 장애인 등 대상자 12명이다.

■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및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 단위	모집 정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 학생	교사 추천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경찰행정학과	33	32		1	1	1
★ 사회복지학과	30	25	5			3
한국어학과	1	1				
● 유아교육과	30	29		1	1	
● 초등특수교육과	26	25				
● 유아특수교육과	15	15				
★ 향장미용학과	30	30				1
★ 호텔조리학과	30	28				2
★ 식품영양학과	31	21	10			2
★ 간호학과	200	180		7	8	
방사선학과	40	36		1	1	
언어치료학과	30	30				1
물리치료학과	50	45		3	7	
응급구조학과	40	38		2	5	
★ 자동차기계공학과	31	31				1
전기공학과	30	30				1
e게임스포츠학과	1	1				
◆ 스포츠레저학과	30	30				
◆ 무도경호학과	30	30				
합 계	708	657	15	15	23	12

★ 교과과정 설치학과, ◆ 실기교사 자격 취득학과, ● 사범계열 학과

학생선발(전형) 방법은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응급구조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학생부 70%, 면접구술 30% 비율로 반영한다.

간호학과는 1단계에서 학생부로 5배수, 물리치료학과·응급구조학과는 6배수를 합격시킨 다음 2단계에서 학생부 70%, 면접구술 30% 비율로 성적을 내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최저학력 기준은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만 적용한다. 정원내는 국어·영어·

수학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1이내, 정원외는 국어·영어·수학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2이내이다.

남부대학교 2019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은 한국어학과와 e게임스포츠학과가 신설돼 2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간호학과가 30명의 입학정원 증원에 따라 200명을 선발한다.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psi.nambu.ac.kr>, 문의 062-970-0114~5(입학부)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2018 청년TLO 육성사업' 선정

3년간 30억 정부 지원 받아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력진흥원이 추진하는 '2018년 청년TLO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약 30억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TLO 육성사업'은 이공계 청년이 대학 졸업 이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 전담인력(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r)으로 근무하면서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대학이 보유 중인 우수기술을 기업에 이전에 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을 '청년 TLO'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사업의 골자다.

조선대는 이공계 미취업 졸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사업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통해 1차년도 56명을 선발하였고, 매년 선발인원을 늘려 기업 및 기술 동향 조사 등 TLO 기본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실험실 연구자 지원 및 실험실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대는 CU-TLO추진단 및 협의회, 멘토단을 구성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취업·창업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CU-TLO 연구회 운영, 아이디어 융합, 발명(심화)인터뷰 참여,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 상생모델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사업책임자인 김재수 산학협력단장은 "청년TLO 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취·창업 지원은 물론 연구성과와 민간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등의 전담인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2018 수요대응형기업애로해결사업' 등 다양한 국가기술사업화사업 수행을 통해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국제교류 활발 ... 주한 라트비아 대사 면담

교환학생 등 학술 협력 제안

동신대학교(총장 최임)는 최근 서울 용산구 주한 라트비아대사관을 방문해 주한 라트비아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월30일부터 8월13일 까지 동신대 재학생과 교직원 12명이 라트비아 등 유럽 5개국에서 '2018학년도 하계 해외 학술연수'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이바르스 대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연수에 참여한 동신대 김수근 학생취업지원처장과 유이상 학생경력개발지원팀장, 김성후 총학생회장 등 6명은 바이바르스 대사와 라트비아 연수 기간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눴다.

바이바르스 대사는 학생들이 3개월 동

안 조별 모임과 간담회를 통해 자신들이 방문할 나라와 도시의 역사, 문화, 생활양식을 조사하며 기존에 잘 알려진 유적지 외에 새로운 탐방 장소를 발굴했다는 점에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근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면담 자리에서 "동신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동신대와 라트비아가 교환 학생을 통해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는 "현재 라트비아에 한국 학생 100여명이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학생들과 문화, 교육을 교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전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年 1000만원 이상 부담 초·중·고 전국 28곳

광주·전남 한 곳도 없어

자녀 1인당 학부모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사립 초·중·고가 2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258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학교 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1222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초·중·고 가운데 학부모 연간 부담액이 1000만원 넘는 곳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28개로 나타났다. 20일 밝혔다.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장 많은 18개(64%) 학교가 위치해 있었고, 경기 5개교, 전북 2개교, 강원·인천·울산은 각각 1개교씩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토지 거래가 자주 이루어 지는 곳!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
투자 하실분과 일하면서 배우실 분을 모십니다.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